

지역 소식통

정읍시, 어르신 학대 예방
응급처치 교육 가져

정읍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어르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 교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년후계농 대상자

체계적 관리·지원 나서

고창군이 미래 고창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60여명을 선별하고 체계적인 교육에 나섰다.

청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농업トレ드에 대한 특강과 의무이행사항 등 사업주진 방향 등이 설명됐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책 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독립경영 1년차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된 자금은 농가의 경영비 및 일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창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150여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별했다. 식량, 채소, 과수, 축산 등 각 농업 분야와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산업 분야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맞춤형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정보화교육, 등이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원활한 농업경영 진입을 돋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풀뿌리 기반 활용 일자리 발굴

부안군-로컬JOB센터, 일자리 창출단 13명 위촉

부안군이 로컬JOB센터와 관내 이장단을 활용한 풀뿌리 행정기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9일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군청 종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관내 13개 읍면별로 1명씩을 추천받아 해당지역 일자리 창출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일자리 창출단 위원은 앞으로 1년간 부안군-부안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창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부안읍 김용화 이장, 백산면 정재원 이장협의회장 등 13개 읍면별로 1명씩을 추천받아 해당지역 일자리 창출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일자리 창출단 위원은 앞으로 1년간 부안군-부안군로컬JOB센터와 함께



해당지역 내 비경제활동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로컬JOB센터에 연계하고 구인 농가·기업들을 발굴·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관내 이장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게 돼서 감사하다"며 "부안군은 일자리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로컬JOB센터는 올해 2월 전라북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안읍행정복지센터 3층에 센터를 열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2개월여 만에 구직신청 118건, 구인신청 277건을 신규 발표했으며, 채용연계는 94명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루쌀로 만든 수제맥주'

고창군 파마스맥주, 가루쌀 활용 수제맥주 대만 수출



고창군이 가루쌀을 활용해 수제 쌀 맥주를 만들고 가루쌀 가공품 중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을 개척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복분자농공단지에 자리잡은 주)파마스맥주가 지난 14일 쌀맥주 4만6656캔을 대만에 수출했다. 지난 3월에도 4만6656캔을 배에 실어 보냈다.

수제 쌀맥주는 국내산 가루쌀을 적절한 비율로 블렌딩해 자체 개발한 맥아로 생산한 정통 수제 맥주다. 해외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만에 첫 수출을 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업체는 국산 보리와 가루쌀로 만든 밀포주 라이스메이트' 제품을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중이다.

앞서 파마스맥주는 올해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인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기공·유통·소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제맥주 전문 회사인 주)파마스맥주는 고창 등 호남 지역에서 생산

된 고품질 국산 보리를 이용, 자체 생산한 맥아를 원료로 한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다. 또한 최근 농업계에서 화제를 끌고 있는 가루쌀을 전분질 원료로 사용한 에일 형태의 맥주를 제조해왔다.

파마스맥주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원동력으로 원료를 제공하는 농가와 상생하는 동시에 가루쌀이 들어간 우리 술을 지금보다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행 소장은 "앞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맥주, 쌀빵 등 더 많은 가공품을 개발해 경제 활성화와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 인기몰이

병아리 쇼츠 영상 조회 수 1시간 만에 1800뷰 돌파

나라 관광·문화·공연·행사 등 다양한 정보 영상을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고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현재 '정읍see'의 구독자 수는 4,040여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415개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50만7,000뷰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병아리 부화 과정을 '쇼츠(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해 공개한 영상은 단 1시간 만에 1,800뷰를 돌파하는 인지도를 향상하고,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 나가고는 계획이다.

전 연령층에게 고루 높게 도달하는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정읍시 인지도를 향상하고,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 나가고는 계획이다.

정읍see는 시정 주요 소식뿐만 아

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읍see' 채널 내 인기 코너인 '벌집한 정읍대'은 넘치는 흥과 끼로 막방과 브이로그(VLOG)에 집중 하며 정읍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참여형 브이로그와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 소통의 침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소통 관계자는 "민선 8기 목표인 적극적인 시민 소통과 시정 홍보 구현을 위해 올해 초 뉴미디어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중앙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중앙도서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25일 저녁 7시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Music radio movie'를 주제로 코리안 아츠 브리스 금관 앙상블 공연팀을 초대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 초대된 코리안아츠 브리스 앙상블은 2011년에 창단해 대한민국 국제관악제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연주를 비롯한 서울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저명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방문



부안군에서는 '곰소젓갈을 이용한

부안군 특화소스 개발을 위해 지난 18일 부안군수와 곰소젓갈협회(회장 김광옥)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부안군 특화 소스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부안군-식품진흥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서, 주요내용은 △식품진흥원과 곰소젓갈협회간 소개 △식품진흥원 기업지원 시설(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폐기장센터, 소스산업화센터)

제조?기공 기업지원 △곰소젓갈축제 기간중 10여종의 시제품을 군민들과 관객们을 대상으로 시식과 석회도 조사 등을 통하여 소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안군수는 식품진흥원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군 특화소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부안군과 식품진흥원이 앞으로 든든한 파트너으로 더 많은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연수 △학교부모 대상 에듀테크와 미래 교육 이해 연수 △스마트기기 활용 독서교육 △인공지능 활용 수업 연수 △전자칠판으로 미래교실 다가기 스마트 교실 연수 △미래학교 탐방 등이다.

유승오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역량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 중심이 디지털 역량강화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질을 찾아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미래교육의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